

투데이 칼럼

소통을 위한 상황판단기법

현대 소통의 시대이며 이 미지시대이다.

소통의 시대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인정받고 주목받을 수 있다면 호감 받고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정의 가족 단위 조직이나 모임, 직장, 사회생활에서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성공한 조직이며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스피치 생활에서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법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말하는 처음효과(Primacy effect)를 노린다. 모임에 나갈 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때론따끈한 최신정보나 뉴스를 준비한 다음, 소개를 마친 뒤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 뉴스를 터뜨려 주변 좋다. 자신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굉장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 정치, 종교, 성과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좌중을 압도하는 마지막효과(recency effect)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김 양 옥

한국 스피치 리더십컨설팅 대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이런 저런 토론 끝에 마지막에 제일 지위가 높은 상사의 한 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마지막 효과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시상식이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적인 것들이나 사무실을 방문 했을 때도 배움을 잘해야 감명 받고 좋은 사이가 된다.

셋째, 그림자효과(Shadow effect)도 주목을 받게 만드는 좋은 기법이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멋들어진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적절

하게 읊으면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현장에서 거친 일을 다루는 사람이 모임에서 부드러운 상수를 멋지게 부르거나 시낭송을 한다면 그 모습에 환호를 보낼 것이다. 간혹 자신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매력을 발산하는 한 방법이다. 넷째,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

흔히 "목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듯 한 업종이 줄지어 늘어난 거리에서 장사가 가장 잘되는 가게는 어디일까? 입구에서부터 3분의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가게가 가장 목이 좋다고 한다. 입구에 있는 가게는 정보파악 차원에서 언어만 보고 끝자락에 있는 가게까지는 힘들고 지루하여 좀처럼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람들

의 심리 때문에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대화에서도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모임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을지? 흔히 가운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상대방의 가장 오른쪽이다. 예를 들면 네 개의 물건을 가지런히 놓아 있고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물건을 선택할까?

심리학자 비스베트와 윌슨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 낮은편이 아니라 내란히 앉은 장소도 이미지 관리나 친근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사람의 귀 중에서도 오른쪽 귀에 대해 말한다면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결국 오른쪽 귀가 정보처리 기능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다. 소통 잘하고 주목받는 스피치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쉬운 작은 것도 소중히 하며 상황판단 잘해서 장소, 시간, 사람에 맞는 스피치기법으로 주목받는 스피치자를 생활화 하자.

독자제언

봄철 줄음운전 그만!

"흥진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 한 고? / 엇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도화. / 생화는 석양 리 에 피어있고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가지 꺾어 먹으리라 / 화풍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에 배고 낙홍은 옷에 진다"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이다. 봄을 즐기는 노래이며 최초의 가사이다. 이처럼 옛 사람도 봄을 노래했다.

시대의 급변화로 봄철에 꽃구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차량들 쏟아져 나오는 시기다.

줄음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고, 사고의 유형을 보면 다수가 추돌 사고다.

식판중에서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

로 차량 운전 시 내부는 20-30분 내에 이산화탄소가 5,000ppm을 넘는다. 이산화탄소가 2000ppm을 넘을시엔 줄음이 밀려오고 3000ppm을 넘게 되면 운문의 통증과 현기증을 유발한다.

이 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선 안전 운전과 가족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차량 내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예방일 듯 싶다.

줄음 운전, 잠시 줄 것 인가? 아니면 영원히 잘 것인가?

우리가 한번더 심각하게 경각심으로 이불을 즐기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영환 고창경찰서 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뉴욕의 새 명물 '베슬'



관광객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아드에 설치된 끝없는 계단 '베슬(Vessel)'을 관람하고 있다. 지난 15일 문을 연 베슬은 15층짜리 나선형 계단 건축물로 외관은 할리리 모양에 내부에는 2500개의 계단이 얽히고 설킨 구조로 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사설

제3금융도시 지정 목소리 크게 내야

전북도가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명분의 목소리를 크게 낼 모 양이다.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 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제3금융도시 지정이다. 그런데 그 추진이 그동안 도전을 받아왔다. 수도권에 노골적으로 탄축을 걸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의 대상이다. 전북 금융은 연가금과 농생명 특화 중심이고 부산 금융은 해양과 그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 그 성격과 분야가 확연히 다르기에 중복되는 게 없다. 그리고 서울은 종합 금융이니 국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전북을 챙겨줄 것처럼 하던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 오늘이다. 저번에 전북을 찾은 최중구 금융위원장에 송하진 도지사가 금융 발전을 부탁했지만 흔쾌한 답은 없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다. 이리다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여간 큰 도전을 받는게 아니겠구나라는 짐작이다. 그리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받

대했던 자들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또다시 시도할 지 모르겠다는 짐작이다.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북도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이번주를 시작으로 제3금융도시 지정 문제가 전북과 부산 간의 불꽃 튀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정 명분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고 또 선취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했다느니 기금운용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을 했지만 그것은 음해의 말이었다. 전북도는 진실을 팩트대로 해서 제3금융도시 지정을 성취해야 한다.

전북도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겠다. 저들이 아무리 끈질기게 방해 공작을 해도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저들이 제3금융도시 지정을 음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주와 혁신도시는 제3금융도시로 우뚝서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이끌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 제3 금융도시 지정은 도민 모두의 열원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대책 강구해야 한다

전북도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혔다.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대책 강구가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역시나 어두운 것 천지다. 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보도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경제 전망이 미세먼치 속처럼 흐린데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이러한 지적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오늘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출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해마다 부득부득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

열기도 더 달구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더라도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 령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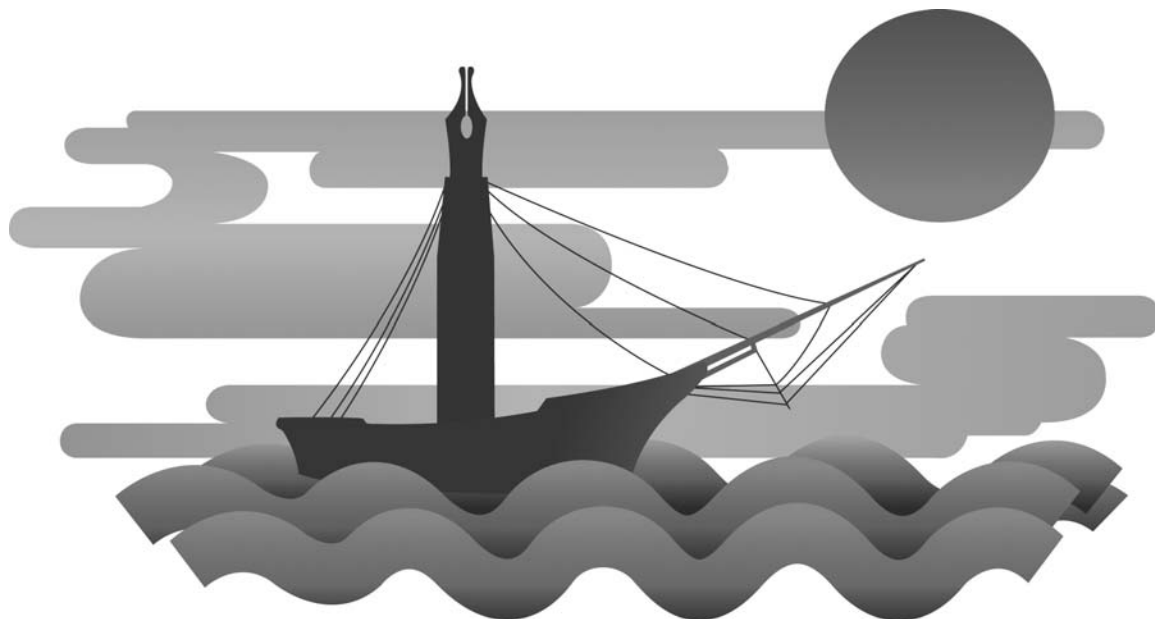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도가 일자리 대책 강구와 관련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